

2021년 제39회 마로니에여성백일장 아동문학 부문 심사총평

- 심 사 명 : 제39회 마로니에여성백일장 아동문학(동시·동화) 부문
- 심사일자 : 2021. 11. 5(금)
- 심사위원 : 김남중, 김영건, 김유진, 김하은, 신지영, 함영연(6명, 가나다순)

39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로니에여성백일장이 올해도 작년에 이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은 등단 경험이 없는 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이 특징이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예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온라인의 영향인지 많은 작품이 응모되어 왔다. 아동문학을 살펴보면 일반글제는 266편, 특별글제는 52편이 접수되었다. 네 가지의 글제 중 코로나 시대의 코드가 반영된 ‘소통’과 ‘의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았다.

아동문학 부문에서는 많은 작품들이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었으나 참신한 작품인데도 단점이 부각되어 수상후보에서 멀어지는 작품들이 눈에 띄어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의 대상이 된 작품은 동화 부문에서 「모두 다 똥이야」, 「아빠 찾기 게임」, 「친구가 필요해」, 「햄스터가 된 영웅」, 「빈자리도 괜찮아」, 「의자와 함께 춤을」 등이었다. 동시 부문에서는 「2021 의자」, 「할매 손가락」, 「나는 감자」, 「흔들의자」 등이었다.

장원을 놓고 동화 「모두 다 똥이야」와 동시 「2021 의자」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모두 다 똥이야」는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똥을 소재로 현실감 있게 사건을 진행시켰다. 지루하지 않게 읽히면서도 나름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점이 장점이었다. 다소 진부한 소재에 에피소드가 단편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2021 의자」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하는 현실의 단면을 텅 빈 의자를 통해 보여주었다. 앉지 말라는 글이 붙어 있는 의자에 글자를 모르는 곤충들이 놀다가 간다는 흥미로운 포착이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다. 자연의 일부인 방아깨비, 고추잠자리의 모습에서 동심을 읽어낸 점이 돋보이지만, 평이하고 시의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고심 끝에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서사력이 있고 난관을 헤쳐나가는 메시지도 뚜렷한 작품에 손을 들어 주었다.

우수상을 받은 「2021 의자」의 ‘의자’는 지난 한 해 우리가 산책길에서 흔히 보았던 그런 의자이다. 거리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거리’를 짚어낸 점이 장점이었다. 하지만 시적 호흡을 좀 더 늘리고 클리셰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더 좋은 작품을 쓸 것이란 기대를 하게 했다.

장려상을 받은 동화 「아빠 찾기 게임」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계속되는 아들의 질문과 아빠의 대답이 끝까지 팽팽한 긴장감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 현관문으로 상징하는 아들과 아빠의 벽이 과연 허물어질 것인지에 대해 가독성 있는 동화지만, 갈등이 고조되지 않고, 사건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점이 흠이었다. 동화 「친구가 필요해」는 안정된 문장과 구성으로 친구와의 화해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사연들이 서로 맞물린 전개로 마음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이 예상되는 이야기 전개가 아쉬움으로 남았다. 동시 「할매 손가락」은 뜨거운 감자를 까는 할머니의 행동과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잘 연결됐다. 특히 할머니의 입말을 잘 배치하여 글의 말맛을 살린 점이 인상적이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잘 통하는 글이었다. 시가 매끄럽게 잘 읽히고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다가

와서 좋다는 의견에 반해 어른이 만들어 쓴 ‘동심천사주의’ 동시의 틀 같다는 반론도 있었다.

입선을 한 여러 작품들도 장점이 많았고, 비록 수상후보에 들지 못한 작품들 중에도 수상 반열에 함께 올리지 못하여 아쉬운 작품이 있었다.

특별글제인 코로나19를 다룬 작품들은 팬데믹 상황을 담아내는데 성심을 보였다. 다만, 치열한 창작 사유보다는 현 상황을 보여주는 데 머문 점이 아쉬웠다. 심사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이 조금 극적인 느낌이 있으나, 상실의 아픔을 판타지 형식으로 풀어낸 「고양이의 세계」를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반열에 오르지 못한 분들에게는 더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떨어지는 마로니에 잎들은 푸릇할 내년을 기약하기에, 지는 것도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